

“경기도 선도하는 기후 대응, 他 지자체 따라오길”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중소 플랫폼 구축·지원방안 논의… 제1차 기본계획 심의·의결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39.2조 재정부 투입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계획’과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복수원 테크노벨리를 발표했는데, 테크노벨리 같은 SOC 투자와 기후변화 사이 관련성을 늘 고민한다”며 “복수원 테크노벨리(RE100 비전을 반영한) 탄소중립 타운으로 만들고, 일타·삼타·문화·여가·스포츠를 같이 해결하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필요한 입법안을 경기도가 제안하면 어떻게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기후 대응 기본계획, 플랫폼 등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따라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계획’과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글로벌 표준 탄소 계산 방법론과 국내 가이드를 준수한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솔루션을 컨설팅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플랫폼의 서비스 결과를 금융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

계해 진단에서 개선(설비교체 등 비용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올 상반기 개발 착수,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

화하여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39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감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촉직 위원들이 함께 했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 PC 활용)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경기 RE100과 기후변화주간 추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종이 없는 사무실 시범운영 등 적극적인 RE100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원=김두일 기자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위원 위촉 50개 동별… 필요시 가정 방문 상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오후 3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50개 동 아동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위원은 담당 동 지역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격려·상담하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위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어린이집 원장, 다함께 돌봄센터장, 복지종사자 등 현재 44명(6명은 모집 중)으로 구성됐다.

앞선 50개 동 아동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아동위원들은 이날 첫 정기회의를 열어 올해 성남시 아동위원의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성남시 아동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라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1년 8월 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다. 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 단계 인증을 추진 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성남=김두일 기자



봄비 속 봄꽃 28일 오전 비가 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시 언남지구 개발 가시화… LH와 협의 진전

‘답보상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동력
교통 대책·세대수 축소 방안 등 대폭 개선 계획 진행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개선이 필요한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동백IC 신설 사업 등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

를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1000억원은 도로 개선 등 일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준하는 비용이다.

이번 협의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된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매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언남지구 중앙에 계획된 문화공원에는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용인 언남지구 위치도.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 용인시 제공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용인=김두일 기자

레벨 5단계의 터치 버튼 업그레이드 내 귀에 쏙~ 고감도 무선 음성 증폭 이어폰 출시!



고감도 완전 무선 스테레오 음성 증폭 이어폰 CH-F331

고감도 완전 무선 스테레오 음성 증폭 이어폰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드립니다!

보청기나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전혀 다른 이어폰 타입의 휴대가 간편하고 주위 시선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일상생활대화, TV시청, 전화, 공연관람 등 일상생활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5단계 음성증폭 크기 조정으로 소리를 조절하여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50% 파격세일
396,000원
198,000원

- 제품명: 무선 스테레오 음성 증폭 이어폰
- 사용전압: DC3.7V
- 충전시간: 약 1시간30분
- 민감도: <-80dbm
- 대기시간: 약 10시간

- 블루투스 5.3
- 코드프리
- 음성증폭기
- IPX4 생활방수
- 충전 크래들
- 터치타입

업그레이드 된 4단계 음성증폭 / 음향 터치버튼

음성증폭이어폰은 터치버튼으로 쉽고 간편하게 음성증폭이 활성화되어 외부 음향에 맞게 음성 증폭을 4단계로 외부환경에 맞게 음량을 조절하며 사용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고감도 마이크 탑재

음성 증폭용 고감도 마이크 2개를 탑재하여 업그레이드된 선명하고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핸즈프리 통화시 더욱 깔끔하고 절제되는통화가 가능합니다.

스피드하고 안정된 블루투스 이어폰

좌우 양방향 듀얼모드 사용시 좌우채널 동시에 수신이 가능하며 편리하고 또렷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2채널 싱글모드 듀얼모드 양방향 통화 가능

듀얼모드 사용시 좌우채널 동시에 음성수신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의 끊임없는 고감도 임베디드 안테나

안정성의 끊임없는 고감도 임베디드 안테나를 지원하여 무선 연결시 끊김현상을 없앴습니다.

선 없이 자유로운 음성증폭이어폰

음성증폭이어폰은 양쪽 이어폰이 자유로운 스테레오 시스템기술이 적용된 이어폰으로 선 없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